

# 순조대 진작 의례와 한글 기록물의 제작

1827년 자경전진작의례(慈慶殿進爵儀禮)를 중심으로

김봉좌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likecho@aks.ac.kr

I. 머리말

II. 한글 문헌의 제작 배경

III. 한글 문헌의 종류와 특징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왕실의 의례와 관련하여 한글로 표기한 기록물이 다수 제작되었으며, 현재 규장각 및 장서각 등에 전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비, 왕비, 왕세자빈을 위하여 제작하는 것과 별도로 비빈들을 보좌하는 상궁(尙宮) 이하의 궁인, 즉 여관(女官)들이 효율적으로 실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sup>1)</sup>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한글 문헌<sup>2)</sup>의 유형과 제작 배경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 개별 문헌들이 해당 왕실 의례에서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특정 왕실 의례를 위하여 제작하는 한글 문헌의 내용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 현전하는 유일한 한글본 의궤(儀軌)<sup>3)</sup>인 『즈경년진작 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1827년(순조 27) 9월 10일에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하여 주관 설행한 진작 의례(進爵儀禮)에 관한 기록으로서 한문본 의궤와 함께 제작된 것이다. 당시 한글본 의궤의 편찬 정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많고, 한문본 의궤를 편찬할 당시에 축자 번역한 것이므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진작례를 위한 한글 홀기 「대년중궁년 상존호 후 왕세즈 즈닉진작 hing례 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後王世子自內進爵行禮笏記)」뿐만 아니라, 당시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존숭례(尊崇禮)에 관한 기록인 『상호도감의궤(上號都監儀軌)』, 존숭례를 위한 한글 홀기 「대년중궁년 상존호시 왕세즈 즈닉친상척보 진치스전문표리 hing례 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進致詞

1) 金奉佐,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2) 한글 문헌은 한글로 표기한 모든 기록물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옛한글로 표기한 기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유한 학술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글 기록물의 학술 용어로서 '한글 문헌'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조선 왕실 의례의 결과보고서 격으로 편찬하는 의궤(儀軌)를 한글로 번역한 경우는 『즈경년진작정례의궤』와 『딩니의궤(整禮儀軌)』가 있다. 『즈경년진작정례의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딩니의궤』는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딩니의궤』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

箋文表裏行禮笏記)』도 함께 전하고 있다.<sup>4)</sup>

『자경전진작정례의궤』는 연향(宴享) 관련 의례로서 일찌감치 학계에 소개되었다.<sup>5)</sup> 그러나 순조대의 다른 왕실 잔치와 달리 규모가 작고 춤을 추는 정재(呈才) 없이 음악 연주를 배경으로 술과 치사를 올리는 의식에 그쳐 무용사나 음악사에서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한글본 의궤에 주목한 국어사 분야에서 어휘와 번역 양상을 연구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다루었을 뿐이다.<sup>6)</sup> 그리고 최근에 의례 및 음악의 변천에 주목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sup>7)</sup>

이 글에서는 한글본 의궤 『조경년진작정례의궤』의 제작 배경뿐만 아니라, 그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진작 의례를 위하여 제작한 한글 문헌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문본 의궤를 비롯한 『상호도감의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주요 관찬사료를 통해 당시 의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록과 현전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해당 의례에서 제작한 한글 문헌을 빠짐없이 조사하였으며, 현전하지 않는 자료는 당대 다른 의례에서 제작한 것으로 유추해보았다.

- 4) 1827년(순조 27) 효명세자가 주관한 존숭례 및 진작례와 관련하여 제작한 문헌은 아래와 같으며, 규장각과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구분	자료명	판본
존숭례 (9월 9일)	『上號都監儀軌』	필사본 2책
	「대년증궁년 삼존호시 왕세조 주니친상척보 진치스전문표리 형례 흘기」	필사본 1첩
진작례 (9월 10일)	『慈慶殿進爵整禮儀軌』	활자본 2책, 필사본 1책
	『조경년진작정례의궤』	필사본 3책
	「대년증궁년 삼존호 후 왕세조 주니진작 형례 흘기」	필사본 1첩

이 글에서 위의 존숭례 관련 한글 문헌들을 함께 다루지 않는 것은 동일 의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5) 김중수, 「奎章閣 所藏 宴享 관련 儀軌 고찰」, 『韓國學報』 第29卷 4號(2003), 56-92쪽.  
 6) 이화숙, 「『조경년 진작 정례 의궤』의 어휘와 번역 양상」, 『국어교육연구』 제44집 (2009a), 321-352쪽; 이화숙, 『조선시대 한글 의궤의 국어학적 연구 - 『조경년진작정례 의궤』와 『명년의궤』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b).  
 7) 김중수, 「조선 후기 內宴 儀禮의 변천」, 『溫知論叢』 第35輯(2013), 415-453쪽.

## II. 한글 문헌의 제작 배경

### 1. 자경전 진작 의례의 실행

1827년(순조 27) 9월 10일에 설행한 자경전 진작 의례는 효명세자(孝明世子)<sup>8)</sup>가 세자빈 조씨와의 사이에서 원손(憲宗)을 얻음에 따라 순조와 순원왕후를 경축하기 위하여 자경전(慈慶殿)에서 베푼 잔치이다. 전날 9일에는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존숭례(尊崇禮)를 거행하였는데, 모두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의례였다.

효명세자는 7월 18일 원손을 얻은 뒤 양전(兩殿)에 존호를 올리기 위하여 22일부터 순조에게 다섯 차례나 상소를 올렸고, 24일에야 윤허를 얻었다. 25일에 존호를 정하였는데, 대전은 ‘연덕응도경인광희(淵德凝道景仁光禧)’, 중궁전의 존호는 ‘명경(明敬)’이었다. 다만 대전의 존호 중 ‘응도(凝道)’는 명나라 헌종황제의 존호이며, ‘광희(光禧)’는 선계(先系)의 휘자(諱字)라는 이의 제기에 따라 28일에 ‘연덕현도경인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로 고쳤다.<sup>9)</sup> 존호를 올린 뒤에는 조출한 술자리를 베풀고자 ‘진작 의례’의 실행을 명하였는데, 진연(進宴)이나 진찬(進饌)보다 규모가 작은 연향으로서 이때 처음으로 설행한 것이다.

하명하기를, “진연이나 진찬으로 명명할 필요 없이 조출한 술자리를 베풀어 경사를 기념하려고 한다. 병신년(1776, 영조 52)의 진찬 의절은 너무 간소한 것 같으니 이번에는 넉넉하게 마련하고 의주(儀註)는 진작의(進爵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sup>10)</sup>

8) 孝明世子(1809-1830)는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맏아들로 1809년 8월 9일에 탄생했다. 3세 때 이름을 ‘뫼(영)’이라 정하고, 7월 6일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819년 10월 11일에 왕세자빈 조씨를 맞았고, 1827년 2월 18일부터 대리청정을 시작했다. 1827년 7월 18일에 원손(헌종)을 얻었으나, 1830년 윤4월 말에 각혈한 뒤 5월 6일에 승하하였다. 5월 12일에諡號는 孝明, 廟號는 文祐, 墓號는 延慶으로 정하고, 7월 15일에 시책문을 올렸다. 1834년에는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올라 왕으로 추존되어 11월 19일에 시호는 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 묘호는 翼宗, 神殿은 孝和, 능호는 綏陵이라 하였다. 1897년 10월 12일에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함에 따라 廟號는 文祖, 帝號는 翼皇帝로 추존되었다.

9) 『純祖實錄』 27년(1827) 7월 25일; 26일; 28일.

10) 『純祖實錄』 27년(1827) 7월 25일. “王世子召見禮曹判書趙鍾永, 令曰, 兩殿上號後, 欲

표1-진작정례소의 구성

직책	해당 관원
進爵整禮堂上(2)	행예조판서 趙鍾永, 호조판서 朴宗薰
郎廳(6)	호조 정랑 鄭端始 ⇒ 정랑 李謙秀, 예조 정랑 任百能·좌랑 沈啓錫, 상의원 첨정 李秉奎, 시옹원 첨정 朴宗聞·봉사 趙學點
分差計士(1)	尹得淵
書吏(10)	예조 千大慶·鄭鎭元·石致永·金鼎漢, 호조 孫壽岡·文始炫·金有祥, 시옹원 鄭東必·李啓祥, 장악원 金元舜
使令(5)	예조 李命得, 호조 金舜福, 병조 張汝良, 선혜청 鄭得柱, 위장소 崔致淵
軍士(2)	병조 喜孫 등 2명
捕卒(2)	2명

의절(儀節)은 병신년, 즉 1776년(영조 52)의 진찬을 참고하되 보다 넉넉하게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1776년(영조 52)에는 1월 7일과 2월 22일에 대리 청정을 시작한 왕세손(正祖<sup>11)</sup>)이 영조를 위하여 기사(耆士)에서 진찬을 베푼 바 있다. 효명세자는 대리 청정 이후 처음으로 잔치를 주관한 왕세손 시절의 정조와 자신의 상황을 동일하게 여기고 그를 따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작 의례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전담 기구로 진작정례소(進爵整禮所)를 공조에 설치하였고, 해당 관원들은 8월 5일에 처음 회동하였다. 진작정례소는 진작정례당상 2인, 낭청 6인, 분차계사 1인, 서리 10인, 사령 5인, 군사 및 포졸 4명으로 구성되었다(표1).<sup>12)</sup>

그리고 존숭례와 함께 진작 의례를 거행할 장소는 창경궁의 자경전(慈慶殿)으로 결정하였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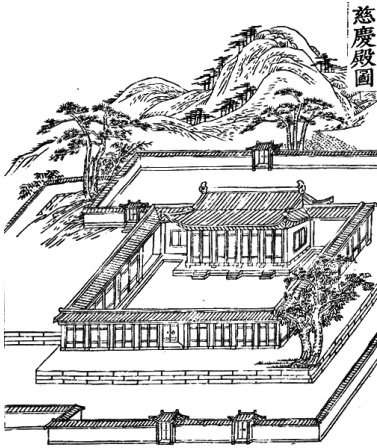
자경전은 정조가 1776년 즉위하자마자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sup>14)</sup>, 1777년(정조 1) 5월 16일에 완공하여<sup>15)</sup>

設小爵, 以伸情禮, 此意往傳大臣可也. 鐘永曰, 進宴與進饌, 皆有獻爵禮, 今番儀節, 何以爲之乎? 令曰, 不必以進宴進饌爲名, 欲設小爵, 以爲識慶, 而丙申進饌儀節, 頗近省約, 今番則從優磨鍊, 而儀註以進爵儀爲之, 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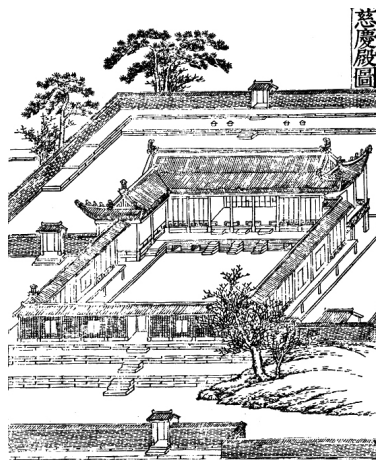
11) 1775년(영조 51) 12월 7일에 영조가 왕세손의 대리 청정을 명함에 따라 「왕세손 청정 절목(王世孫聽政節目)」이 마련되었고, 12월 10일부터 왕세손(정조)의 청정이 시작되었다. 『英祖實錄』 51년 12월 7일; 8일; 10일.

12)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首, 座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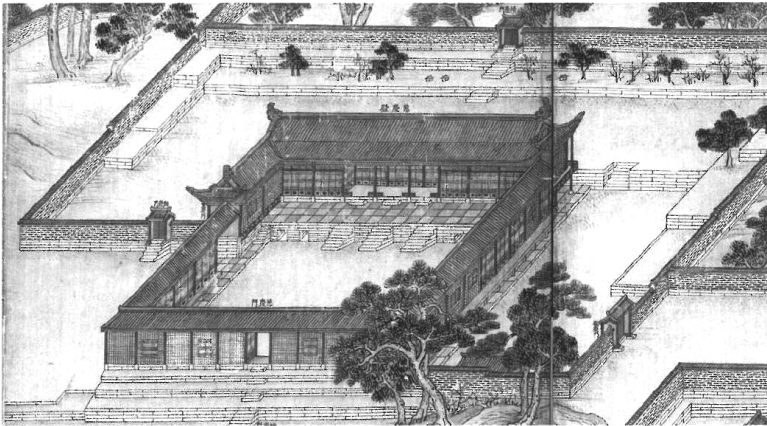
13) 『純祖實錄』 27년(1827) 7월 28일.



『자경전진작정의례』(1827)



『진작의례』(1828)



『동궐도』(1824-1833)

## 도1-창경궁 자경전

1778년(정조 2) 5월 2일부터 혜경궁 홍씨의 처소로 쓰였다.<sup>16)</sup> 이후 혜경궁

14) 『日省錄』 정조 즉위년(1776) 8월 24일. “召見慈慶殿營建堂上鄭弘淳·郎廳鄭志儉于尊賢閣, 時爲奉慈宮, 營殿於昌慶宮內也.”

15) 『正祖實錄』 1년(1777) 5월 16일. “慈慶堂成, 堂在昌慶宮, 時上有移御之意, 爲惠慶宮所御營建, 以具允鉉爲營建堂上. 教曰, 爲便小子晨昏之奉, 有此新構, 而切勿宏侈, 以仰體謙約之慈意也.”

16) 『日省錄』 정조 2년(1778) 4월 29일. “禮曹以奉慈殿于東朝, 奉慈宮于慈慶殿, 吉日, 啓, 來五月初二日巳時午時.”

『承政院日記』 정조 2년(1778) 5월 2일. “王大妃殿御景福殿, 惠慶宮御慈慶殿後, 大殿·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 政院·玉堂·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을 위한 의례의 선행 장소로 자주 사용되면서 내연(內宴)의 주요 처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창경궁에는 자경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자경전진작정례 의궤』의 도식을 통해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다만 1828년(순조 28) 이후에 편찬된 『진작의궤(進爵儀軌)』나 『동궐도(東闕圖)』의 도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본래 정면 4칸이었으나, 중앙의 3칸 대청과 양쪽의 2칸으로 확장하여 정면 7칸의 건물이 되었고 서쪽 측면으로 2칸을 더 증축하였다. 1827년 9월에 자경전에서 처음으로 진작 의례를 크게 베풀면서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로 보이나, 이듬해 2월 12일에 자경전에서 진작 의례가 선행되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도1).

## 2. 의례 진행을 위한 한글 문헌

자경전에서 선행한 진작 의례는 순조와 순원왕후를 비롯하여 효명세자, 세자빈 조씨, 명온공주(明溫公主), 좌우명부(左右命婦), 종친(宗親), 의빈(儀賓), 척신(戚臣)으로 참석자를 한정하는 내연(內宴)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이 참석하는 외연(外宴)과 달리 의례를 진행하는 주요 실무자가 상궁(尙宮) 이하 여관(女官)이다. 당시 의례에서 의장(儀仗)을 가지고 호위한 이들의 신분과 수효를 기록한 「의위(儀衛)」<sup>17)</sup>를 살펴보면 모두 여관들이 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례의 절차를 기록한 「의주(儀註)」<sup>18)</sup>를 보면 상궁 등 품계가 있는 여관 외에 여집사(女執事)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관은 정5품 상궁 이하의 품계가 있는 궁녀(宮女)를 일컫는다. 왕실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각종 일을 보좌하는데, 인도·예의·기거·규율·문서·계품·의복·장식·음식·의약·침상 및 휘장·여궁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으며<sup>19)</sup> 각각의 업무에 따라 직명과 품계가 규정되어 있다.<sup>20)</sup> 이 외에 품계가 없는 궁녀들은 여집사라 일컫는다. 이들은

17)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2, 儀衛.

18)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儀註.

19) 『世宗實錄』 10년(1428) 3월 8일.

20) 『經國大典』 卷1, 吏典, 內命婦.



## 도2-자경전 진작 의례 속의 한글 문헌

의례에서 기물 배설, 자리 인도, 전달, 배종 등 주요 참석자를 보좌하는 한편 의례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경전 진작 의례에서는 의례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기 위한 ‘악장 노래(唱樂章)’와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축하글을 아뢰는 ‘치사 대독(代致詞)’ 부분이 눈에 띈다. 각각 여집사와 전언(典言)이 말도록 명시되어 있다(도2). 악장을 노래한 여집사와 치사를 대신 읽은 전언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악공(樂工)과 여령(女伶)의 이름을 기록한 「공령(工伶)」<sup>21)</sup>에서 찾을 수 있다. 선창악장(先唱樂章)을 맡은 차비(差備)는 효절(孝節)과 복희(福禧), 후창악장(後唱樂章)을 맡은 차비는 명옥(明玉)과 연심(蓮心)이며, 전언을 맡은 차비는 진월(眞月)과 선옥(仙玉)이다. 이들은 모두 여령으로서 상전(賞典)으로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는 면천(免賤)의 특혜를 받았다.<sup>22)</sup> 이와 같은 천민 신분의 여령들이 노래하고 글을 읽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글의 도움이 있었다. 한글 문헌의 제작은 의례를 진행하는 실무자가 여성인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21)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2, 工伶.

22)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2, 賞典.



### III. 한글 문헌의 종류와 특징

#### 1. 치사(致詞) · 악장(樂章)

진작 의례의 절차 속에서는 치사(致詞)와 악장(樂章) 두 종의 한글 문헌을 찾을 수 있다. 치사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짓는 운문 형식의 글이고, 악장은 음악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위하여 축하하는 내용으로 짓는 운문 형식의 노랫말이다.

치사는 일반적으로 산문 형식의 전문(箋文)<sup>23)</sup>과 함께 올린다. 그러나 진작 의례 전달에 거행된 존승례에서 치사와 전문을 올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진작 의례에서는 치사만 올리게 되었다.<sup>24)</sup> 이에 따라 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것으로 각각 1벌씩 마련하며, 왕세자·세자빈·명온공주·좌명부·우명부·종친·의빈·척신이 차례대로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효명세자는 치사를 직접 짓고, 왕세자빈의 치사와 선후창 악장은 모두 문관이 짓게 하였으며, 공주 이하의 치사는 승문원에서 맡도록 하였다.<sup>25)</sup>

그 결과, 진작 의례에 쓰는 치사는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고 있던 김이교(金履喬, 1764-1832)가 모두 도맡아 찬술하였다. 김이교는 예문관 대제학으로서 9월 9일 존승례와 10일 진작례를 위한 전문, 치사, 악장을 대부분 제술하였다. 김조순이 존승례를 위하여 지은 대전 악장과 효명세자가 진작례를 위하여 지은 예제 치사를 제외하면 모두 김이교가 지은 글이다(표2).

23) 箋文은 국왕을 비롯한 왕실의 어른에게 축하나 위로의 뜻을 산문 형식으로 지은 글로서 격식에 맞추어 쓰는 것이 특징이다. 韓熙珍, 「조선 후기 箋文 연구 -賀箋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참조.

24)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筵說, 丁亥 7월 27일. “王世子座涵仁亭, 戶禮工曹判書·司饗院提調入對時, 令曰, 儀註何以爲之耶? 禮曹判書趙鍾永曰, 今雖出草本, 姑未正書矣. 謹稽乙卯年例則, 進箋進表裏, 而今番則, 陳賀自當有進箋進表裏之禮, 進爵時則似不必疊行矣. 令曰, 唯致詞則有之乎? 鍾永曰, 然矣.”

25) 『日省錄』 순조 27년 8월 8일; 『承政院日記』 순조 27년 8월 8일; 『慈慶殿進爵整禮儀軌』 권2, 來關, 丁亥 8월 10일. “禮曹達言, 來九月初九日大殿中宮殿上尊號後進爵時, 王世子所進致詞, 纔已睿製以下矣. 王世子嬪所進致詞及先後唱樂章, 並令文任撰出, 公主致詞·內命婦致詞·外命婦致詞·宗親致詞·儀賓致詞·戚臣致詞, 請並令承文院舉行. 又達言, 來九月初九日大殿·中宮殿尊號冊寶王世子自內親上時, 王世子所進致詞·箋文, 王世子嬪所進致詞, 並令文任撰出, 大殿·中宮殿陳賀時, 百官所進致詞·箋文, 世子宮陳賀時, 百官所進致詞, 請亦令承文院·藝文館舉行, 並依之.”

표2-전문·치사·악장의 제술 비교

	존숭례(9월 9일)	진작례(9월 10일)
전문(箋文)	왕세자친상대전전문(김이교) 왕세자친상중궁전전문(김이교) 백관 양전전문	
치사(致詞)	왕세자친상대전치사(김이교) 왕세자친상중궁전치사(김이교) 왕세자빈친상대전치사(김이교) 왕세자빈친상중궁전치사(김이교) 백관 양전치사 백관 왕세자치사	왕세자 양전치사(효명세자) 세자빈 양전치사(김이교) 명은공주 양전치사(김이교) 좌명부 양전치사(김이교) 우명부 양전치사(김이교) 종친 양전치사(김이교) 의빈 양전치사(김이교) 척신 양전치사(김이교)
악장(樂章)	대전악장-惟天章(김조순) 중궁전악장-孝德章(김이교)	선창악장-萬年壽(김이교) 후창악장-樂千春(김이교)

당시 존숭례와 진작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문은 존숭례에서 왕세자와 백관이 양전에 올랐으며, 치사는 존숭례에서 왕세자·왕세자빈·백관, 진작례에서 왕세자·왕세자빈·명은공주·좌명부·우명부·종친·의빈·척신이 차례로 올랐다. 악장은 대전과 중궁전을 구분한 존숭례와 달리 진작례에서는 의례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한 선창과 후창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치사와 악장 모두 문관이 한문으로 지었으나, 여관 혹은 여집사가 읽거나 노래 불러야 했으므로 한글본을 별도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치사의 원문은 한문본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 있으며, 치사의 한자음 및 번역문은 한글본 『즈경년진작정례의궤』에 수록되어 있다.<sup>26)</sup>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8구의 각기 다른 문장으로 짓고, 명은공주 이하는 4구의 동일한 문장을 지었는데, 모두 순조와 순원왕후의 덕을 칭송하고 만수무강을 빌며 원손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이다(표3).

문장을 완성한 한문본과 한글본은 본의례에서 사용하기 전에 왕과 왕세자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진작 의례의 치사를 검토한 기록은 없으나, 존숭례의 치사와 전문은 8월 25일에 순조에게 입계(入啓)하고 왕세자에게 입달(入達)<sup>27)</sup>한 기록이 있다. 존숭례는 상호도감(上號都監), 진작례는

26)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致詞; 『즈경년진작정례의궤』 권1, 치사.

27) 『上號都監儀軌』 卷上, 舉行日記. “八月二十五日, 致詞箋文眞諄書, 入啓入達.”

표3-자경전 진작 의례의 치사 원문

진치사자	제술자	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순조)	明敬王妃殿下(순원왕후)
왕세자	왕세자	세조신(世子臣) 공우도광칠년구월초십일 연덕현도경 인순희주상던하(恭遇道光七年九月初 十日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	세조신(世子臣) 공우도광칠년구월초십일 명경왕비던 하(恭遇道光七年九月初十日明敬王妃 殿下)
		옥조면남(玉藻面南) ㅎ 시니 수성요북(壽星耀北)이라 송등삼작(頌騰三爵)이오 경일팔역(慶溢八域)이라 주실면과(周室綿瓜)이오 한던함이(漢殿含飴)이라 특성오복(祝聖五福) ㅎ 시니 비쇼조스(非小子私)라	적의당낙(翟儀長樂)에 화기인온(和氣氤氲)이라 지덕빙성(至德配聖) ㅎ 시니 홍복이손(洪福貽孫)이라 좌효반도(佐肴蟠桃)오 범치상욱(泛卮祥旭)이라 직연지오(載譙載娛) ㅎ 시니 시만시억(時萬時億)이라
		신불승경변지(臣不勝慶忭之至) 근상천천세수(謹上千千歲壽)	
왕세자빈	대제학 金履喬	세조빈점도시(世子嬪妾趙氏) 공우도광칠년구월초십일 연덕현도경 인순희주상던하(恭遇道光七年九月初 十日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	세조빈점도시(世子嬪妾趙氏) 공우도광칠년구월초십일 명경왕비던 하(恭遇道光七年九月初十日明敬王妃 殿下)
		지치지능(至治之隆)이오 대덕지명(大德之名)이라 이손경득(貽孫慶篤) ㅎ 시니 양호례성(揚號禮成)이라 녕절식연(令節式燕) ㅎ 시니 유주여승(有酒如澠)이라 송방조여반테(頌邦祚於磐泰)오 특성슈어강능(祝聖壽於岡陵)이라	존림적의(尊臨翟儀) ㅎ 시 대비홍명(對賁鴻名)이라 낙능함이(樂融含飴)오 례흠칭광(禮洽稱觥)이라 동관휘광(彤管徽光)이오 황화녕신(黃華令辰)이라 공천성어아작(恭薦誠於亞酌)이오 영승환어당춘(永承歡於長春)이라
		점 불승경변지(妾不勝慶忭之至) 근상천천세수(謹上千千歲壽)	
명운공주 좌우명부 중친 의빈 척신	대제학 金履喬	의성진척(儀成進冊)이오 례비칭상(禮備稱觴)이라 예효준희(睿孝淮海)오 성슈여강(聖壽如岡)이라	함이한던(含飴漢殿)이오 작례주연(酌禮周筵)이라 예효준희(睿孝淮海)오 불녹여천(弗祿如川)이라

진작정례소에서 각각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두 의례에 사용된 치사·전문·악장은 대부분 대제학 김이교가 제술하였으므로 함께 올려 검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작 의례를 위한 치사는 왕세자를 비롯하여 왕세자빈, 명운공주, 좌명부, 우명부, 중친, 의빈, 척신이 대전과 중궁전에 각각 올리는 것으로 총 16건을 제작하였다. 이때 각 1벌씩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각 전궁

내입(內入) 건, 여관·중사·여령의 이습(肄習) 건, 정일(正日)에 쓰는 건<sup>28)</sup> 등으로 여러 벌을 만들었다. 대전·중궁전·세자궁 등에 바치는 용도, 여관·중사·여령들이 예행 연습을 하는 용도, 의례 당일에 쓰는 용도로 각기 다른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격, 서체, 장황 등의 외양 또한 각기 다르게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한문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제작하였는데, 진작정례소에서 발급한 감결(甘結) 형식의 문서를 보면 그 소용 물품과 인력을 짐작할 수 있다. 공조, 제용감, 면주전, 지전 등에 대해서는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하였고, 교서관, 사자청, 도화서 등에 대해서는 인찰선을 긋고 정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책장(冊匠)을 차출하도록 조치하였다.<sup>29)</sup> 여기에서 언급한 소용 물품은 아래와 같다.

• 진작시 진·언서(眞諺書) 악장 및 치사의 정서(正書)에 소용되는 물품.

- 상품도련지(上品搗鍊紙)
- 인찰감(印札次): 당주홍·편연지·황필·진묵·화수필
- 책가위감(衣次): 홍수화주·남수화주·초록수화주·청능화
- 제목감(題目次): 흰 비단(白綾)·황선자지

치사와 악장의 글은 상품도련지에 쓰되, 당주홍·편연지의 붉은 물감과 황필, 참먹과 화수필로 인찰선을 그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표지를 감싸는 데에 홍수화주 등의 옷감을 사용하고, 그 위에 흰 비단과 황선자지를 붙여 제목 쓰는 면을 만들었다. 소용 물품으로 볼 때 왕과 왕비에게 바칠 목적으로 화려하게 제작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러한 모양을 갖춘 치사와 악장은 전하지 않는다. 의례 당일에 쓰는 치사에 대해서는, 한글 치사를 의례 당일에 쓰는 정치사(正致詞)와 같이 만들어 ‘치사함(致詞函)’에 넣어두며 모두 전표지(箋表紙)로 제작한다는 기록이 있다.<sup>30)</sup>

28)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2, 稟目, 丁亥 8월 19일. “今此進爵敎是時, 各殿宮內入樂章致詞, 及女官中使女伶肄習與正日樂章致詞, 所入之地祿屬, 竝爲捧甘取用, 何如, 稟事. 據依稟.”

29)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2, 甘結, 丁亥 8월 15일. “右甘結爲今此進爵敎是時眞諺書樂章及致詞正書所入. 上品搗鍊紙. 印札次, 唐朱紅·片氈脂·黃筆·眞墨·畫水筆, 衣次, 紅禾紬·藍禾紬·草綠水紬·青菱花, 題目次, 白綾·黃扇子紙等屬, 從實入進排爲於, 印札及正書次, 寫字官·畫員·冊匠, 亦爲待令事. 【工曹·長興庫·濟用監·豐儲倉·校書館·寫字廳·圖書署·彩色契·立慶·絁綿慶·紙慶】”

30)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2, 甘結, 丁亥 9월 2일. “右甘結爲今此進爵敎是時, 諺書致詞, 依正

표4-자경전 진작 의례의 악장 원문

구분	제술자	내용
선창 악장 (先唱樂章)	대제학 金履喬	면질백 세경(綿歷百世慶)이오 의란칠월슈(猗蘭七月秀)라 성주황화절(聖酒黃花節)의 제칭만년슈(齊稱萬年壽)라 동악집궁정(衆樂集宮庭)하니 목연왕심령(穆然王心寧)이라 홀준양덕성(通駿揚德聲)이오 식연승지환(式燕承至歡)이라 위환급조진시락(爲歡及早眞是樂)이니 궁동성인안악단(宮中聖人顔渥丹)이라 만년슈(萬年壽) 오장장이구(五章章二句)
		궁동성인안악단(宮中聖人顔渥丹)하니니 안부존영낙천춘(安富尊榮樂千春) 이로다 낙천춘(樂千春)하니 경만민(慶萬民)이로다 만민제성하군왕(萬民齊聲賀君王)하니 서수강직조원랑(庶事康哉詔元良)이 로다 궁동성인부하위(宮中聖人夫何爲)리오 천상기린포지슬(天上麒麟抱在膝)이 로다 일월광화우로조(日光華雨露調)하니 좌견반도화부실(坐見蟠桃花復實)이 로다 낙천춘(樂千春) 오장장이구(五章章二句)
후창 악장 (後唱樂章)	대제학 金履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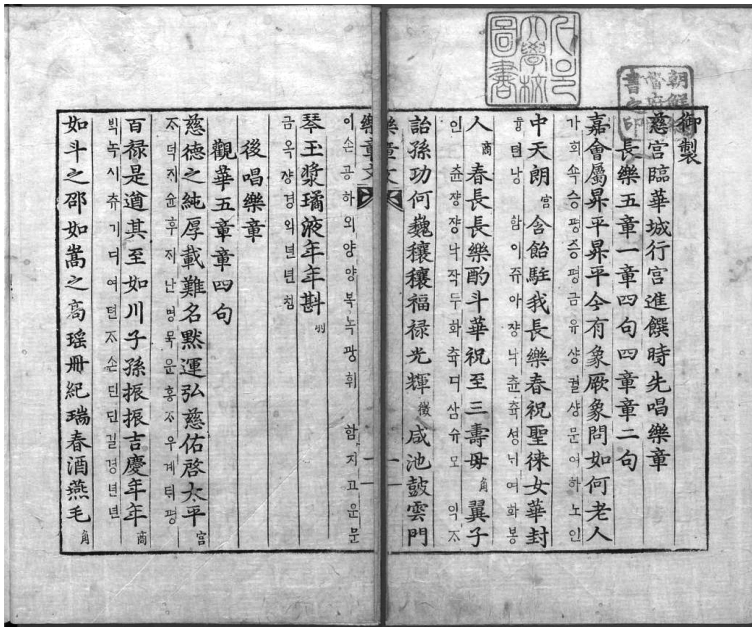
악장 또한 치사와 마찬가지로 원손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대제학 김이교가 지었으며, 선창 악장과 후창 악장으로 나뉘어 진작 의례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악장의 원문은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 있으며, 그 한자음 및 번역문은 『즈경년진작정례의궤』에 수록되어 있다(표4)<sup>31)</sup>.

의주에 따르면 악장은 여집사 2인이 동서로 나뉘어 왕과 왕비가 있는 북쪽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한글본 의궤에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으나, 한자의 음가를 소리 내어 부르되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 오음에 맞추어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부터 한글로 지은 악장도 현전하고 있으나<sup>32)</sup> 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에 제작한 한글본 악장을 보면 선창과 후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절 끝에 오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사한 사례로서 비교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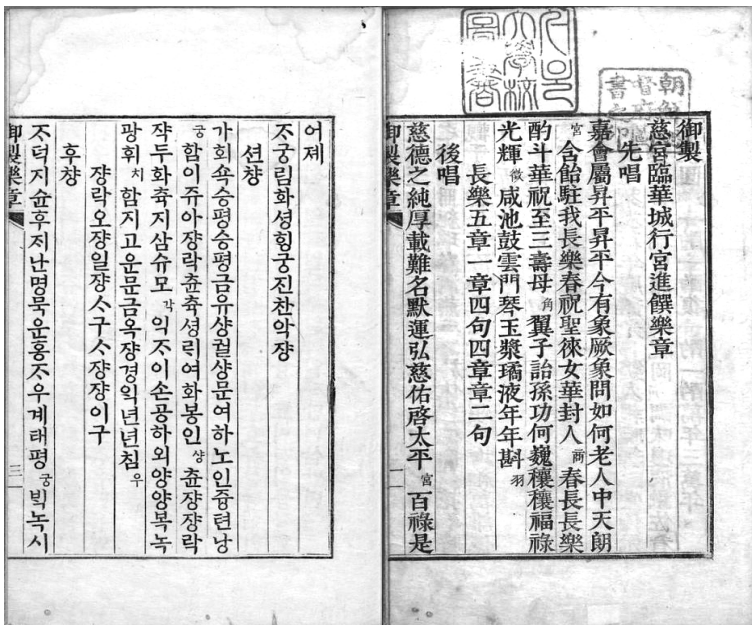
致詞例, 同盛於正日致詞函以入事, 下令教是置, 同致詞十六件所入箋表紙卽爲進排事. 【承文院·造紙署】”

31)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樂章; 『즈경년진작정례의궤』 권1, 악장.

32)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 악장 -夜宴의 〈樂歌三章〉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20집(2004a), 173-195쪽; 신경숙, 「순조조 외연의 한글 악장 -효명세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第15輯(2004b), 287-313쪽.



내입간(奎 2065)



분상간(奎 7084)

### 도3-정조대의 한글 악장

정조는 1795년(정조 19)에 혜경궁 홍씨의 주갑을 맞아 화성행궁의 봉수당(奉壽堂)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를 위하여 「자궁입화성행 궁진찬악장(慈宮臨華城行宮進饌樂章)」과 「자궁주갑진찬악장(慈宮周甲進饌樂章)」의 제목으로 두 종의 악장을 지은 바 있다(도3).

정조대의 악장은 내입건과 분상건으로 구분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판본이 현전한다. 내입건은 정유자(丁酉字), 분상건은 정리자(整理字)로 각기 다른 활자로 인출하였는데, 내입건이 분상건에 비해 규격이 크고 지질이 우수하다. 또 내입건으로 제작한 정유자본은 한글로 한자음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편찬한 데 반하여 분상건으로 제작한 정리자본은 한문 원문 다음 장에 한자음을 표기한 한글 원문을 별도로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내입건은 두 종의 악장을 분책하여 제작하고, 분상건은 합철하여 제작하였다. 현재 내입건은 규장각에 각 1책씩 현전하며, 분상건은 전국 각지에 여러 책이 현전한다.

이를 통해 내입건으로 제작하는 악장은 비빈들을 위하여 크고 아름답게 제작하되 한자음을 병기하는 형태로 제작하며, 종친 및 백관 등에게 두루 배포할 목적으로 인출하는 분상건은 한문 원문 뒤에 한글본을 별도로 붙여서 제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여럿들이 의례에서 가창하는 용도로 제작하는 한글 악장은 한문 원문 없이 한자음을 한글로만 표기하되 각 구절에 오음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의주(儀註) · 홀기(笏記)

왕실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도와 전례에 따라 절차를 정하고 차질 없이 거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례를 준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절차를 빠짐없이 서술한 의주(儀註)를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절차를 간명하게 정리한 홀기(笏記)를 제작한다.

의주는 효명세자의 명에 따라 ‘진작의(進爵儀)’로 명명하고, 1776년(영조 52)의 진찬 의절을 참고하여 마련토록 하였다.<sup>33)</sup> 그리고 삼작(三爵)을 올리되 제1작은 왕세자, 제2작은 왕세자빈, 제3작은 명은공주가 올리도록

33) 『日省錄』 순조 27년 7월 25일; 『慈慶殿進爵整體儀軌』 권1, 筵說, 丁亥 7월 25일.

하였다.<sup>34)</sup> 이에 따라 7월 27일에 초본을 마련하고<sup>35)</sup>, 한문본과 한글본을 제작하여 왕과 왕세자에게 검토를 받았다. 8월 28일에 존숭례의 의주를 순조에게 입계(入啓)하고 왕세자에게 입달(入達)<sup>36)</sup>할 때 함께 검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주는 홀기와 더불어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진작 의례를 위하여 제작한 의주 및 홀기의 수량은 알 수 없으나,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설행한 1828년(순조 28) 2월의 남전(南殿) 작헌례(酌獻禮)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당시 대전 서입건(書入件)으로 한문본 의주 1본, 중궁전 서입건으로 한글본 의주 1본, 세자궁 서입건으로 한문본 의주 1본, 세자빈궁 서입건으로 한글본 의주 1본, 한문·한글본 홀기 합 4건, 명은공주·중사·여관이 쓰는 홀기 각 1건으로 모두 11건을 제작한 기록이 있다.<sup>37)</sup> 즉, 대전·중궁전·세자궁·세자빈궁에 올리는 용도로 의주와 홀기 각 4건을 제작하고, 명은공주와 더불어 실무를 맡은 중사 및 여관을 위한 것으로 홀기 3건을 제작하였으며 한글본은 여성의 경우에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제작한 의주는 현전하지 않으나, 의궤에 수록된 내용과 장서각 소장인 「대왕대비던 가상존호척보 친전의(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親傳儀)」 등 다른 의주를 통해 그 형태를 유추해볼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의주는 약 33×18cm의 규격으로 제작하며, 붉은색 인찰선 안에 10행 27자 정도의 글을 쓴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의례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하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글자의 행을 높이는 대두(擡頭)를 지키면서 행을 바꾸어 쓰는 것이 특징이다(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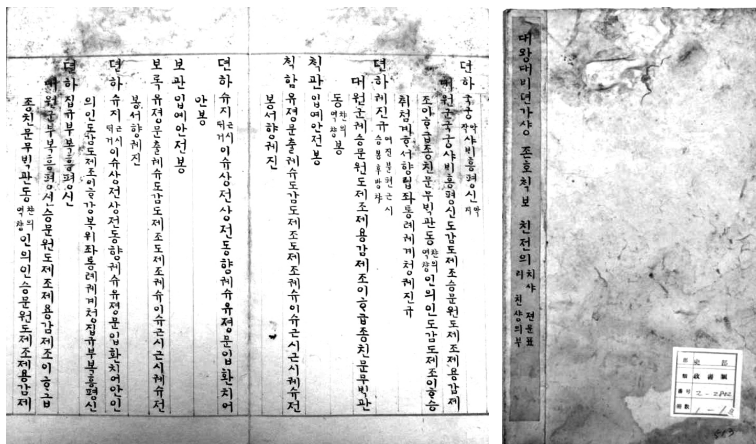
34)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筵說, 丁亥 7월 26일.

35)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筵說, 丁亥 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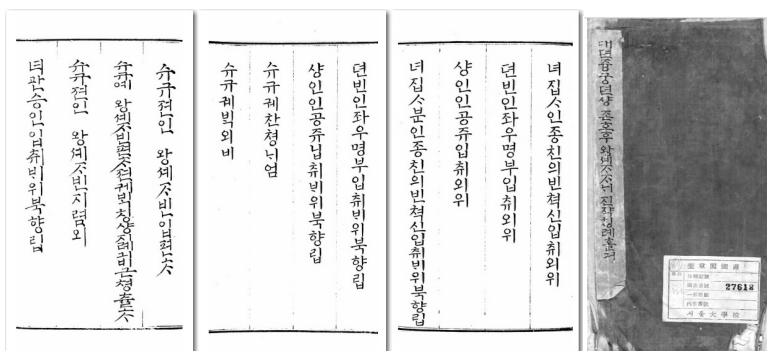
36) 『上號都監儀軌』 卷上, 舉行日記. “八月二十八日, 儀註眞諡書, 入啓入達.”

37) 『日省錄』 순조 28년 1월 28일. “余曰, 儀註成出後各殿宮皆爲書入乎? 鍾永曰, 大殿書入件眞書儀註一本, 中宮殿書入件諡書儀註一本, 世子宮書入件眞書儀註一本, 世子嬪宮書入件諡書儀註一本, 眞諡笏記合四件, 明溫公主中使女官笏記各一件, 儀註與笏記合爲十一件矣. 余曰, 諡書儀註則不必書入, 而如或已爲繕寫, 則奉入亦好矣, 此則出去後, 觀其始役與否, 以爲進退, 而因政院微稟也. 余曰, 各殿宮所入儀註笏記, 都封竝入于小朝, 則自小廟當爲分進, 此意承旨傳於禮判也.”





도4- 의주(「대왕대비던 가상존호척보 친전의」)



도5- 「대던중궁던 상존호후 왕세즈 주니진작 형례 흘기」

반면 흘기는 의주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전체 크기나 본문의 기재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진작 의례 당시에 제작된 흘기인 「대던 중궁던 상존호 후 왕세즈 주니 진작 형례 흘기(大殿中宮殿上尊號後王世子自內進辭行禮笏記)」를 보면, 전체 규격이 25.3×12.5cm로 의주보다 조금 작아서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이다. 본문의 기재방식도 의식 절차를 마다마디로 꿇고 행에 맞춰 써서 의례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곧바로 실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전날의 존승례를 위하여 제작한 흘기인 「대던 중궁던 상존호시 왕세즈 주니친상척보 진치스전문 표리 형례 흘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實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또한 진작 의례의 흘기와 매우 흡사하므로,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도5).

홀기는 본래 관리가 휴대하던 홀(笏)의 형태를 본떠서 종이를 병풍처럼 접어 기록한 문헌으로, 주로 의식 절차를 기록하여 의식을 진행하는 실무자가 휴대하면서 열람하고 낭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글 홀기는 한문을 번역하기보다는 한자의 음가를 한글로 표기하고 구두점을 찍어서 직관적으로 보고 확인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 일반적이다.

### 3. 의궤(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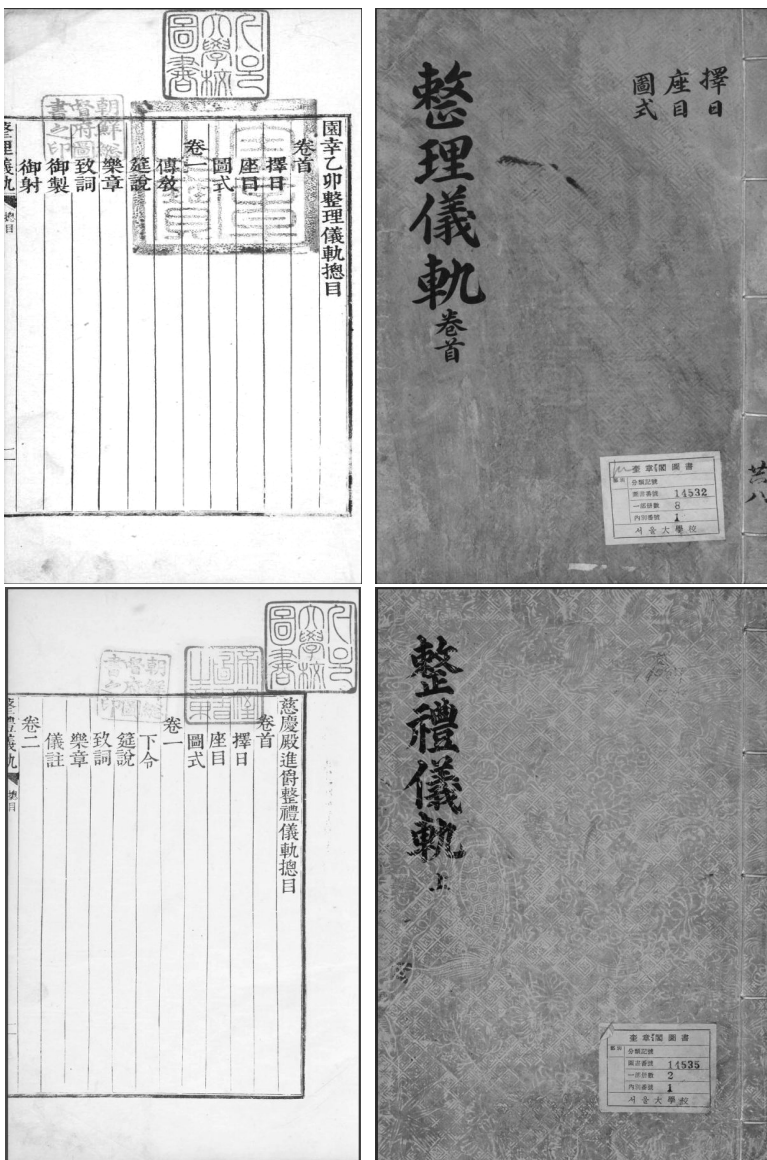
9월 10일 손시(巽時, 8시 반-9시 반)에 시작한 진작 의례가 끝나자마자 효명세자는 곧바로 의궤(儀軌) 편찬을 명하였다. 진작 의례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모아 의궤로 편찬하되 『을묘정리의궤(乙卯整理儀軌)』에 의거하여 교정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활자로 인출하라고 명하였다.

하령하기를, “의궤를 교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을묘정리의궤(乙卯整理儀軌)』의 전례에 의거하여 하라. 2건은 대전과 중궁전에 봉입(奉入)하고, 2건은 내입(內入)하며, 1건은 규장각, 1건은 예조, 1건은 서고(西庫)에 두되, 합 7건 모두 『정리의궤』의 활자로 인출하라”라고 분부하였다.<sup>38)</sup>

『을묘정리의궤』는 1795년(정조 19)에 정조가 혜경궁 홍씨의 주갑을 맞아 현릉원에 배알하고 화성행궁의 봉수당(奉壽堂)에서 회갑연을 베풀었던 일의 전말을 찬집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를 가리킨다. 이는 동활자 ‘정리자(整理字)’를 주조하여 의궤로서는 처음으로 인쇄 간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조가 부모를 향한 효심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만들었듯이 효명세자 또한 부모를 위한 잔치를 의궤로써 기념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의궤의 표지와 총목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될 수 있었다(도6).

의궤를 편찬하는 일은 진작정례당상관을 맡았던 예조판서 조종영과 호조판서 박종훈을 의궤교정당상(儀軌校正堂上)으로 삼아 주관토록 하였다.<sup>39)</sup> 이에 따라 진작정례소의 구성원으로 의궤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으

38) 『日省錄』 순조 27년 9월 10일;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下令, 丁亥 9월 11일.  
“令曰, 儀軌, 不可不校正, 依乙卯整理儀軌例爲之, 二件奉入大殿·中宮殿, 二件內入, 一件奎章閣, 一件禮曹, 一件西庫, 合七件, 並整理儀軌板字刊印事, 分付.”



도6-『원행을묘정리의궤』와 『자경전진작정례의궤』 비교

나, 의례 준비와는 전혀 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에 호조판서 박종훈은 진작정례소의 일과 맞지 않음을 강조하며 교정은 교서관, 간인은 규장각에서 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낭청을 6인에서 4인으

39) 『日省錄』 순조 27년 9월 10일;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下令, 丁亥 9월 11일.

로 감하고 호조에서 경비를 지급하게 하였다.<sup>40)</sup> 그러나 20여 일이 지나 9월 30일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을 때까지도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두 당상관 조종영과 박종훈이 회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해당 관사의 문서도 미처 취합하지 못하였다. 박종훈은 의례가 정교하게 만들어 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또다시 규장각에서 인출하도록 건의하였다.<sup>41)</sup>

한 달 가까이 의례 편찬이 지체되자 효명세자는 전담 기구로 의궤소(儀軌所)를 두어 교서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10월 초2일에 낭청 이하의 관원들을 차출함에 따라 처음으로 의궤 편찬의 실무자들이 회동할 수 있었다. 의궤소는 의궤교정당상 2인, 낭청 3인, 분차계사 1명, 서리 6명, 서사 2명, 고직 1명, 사령 2명, 문서직 2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는데<sup>42)</sup>, 진작정례소의 관원들 가운데서 차출한 경우가 많았다. 의궤교정당상, 낭청, 분차계사, 서리, 사령과 같이 주요 관원 14명이 모두 진작정례소의 일을 전담했던 인물이다(표5).

표5- 의궤소의 구성

직책	해당 관원	비고
儀軌校正堂上(2)	행예조판서 趙鍾永, 호조판서 朴宗薰	진작정례당상
郎廳(3)	호조정랑 李謙秀, 예조정랑 任百能, 예조좌랑 沈啓錫	정례소 낭청
分差計士(1)	尹得淵	정례소 분차계사
書吏(6)	예조 千大慶·石致永, 호조 文始炫·金有祥, 사옹원 鄭東必·李啓祥	정례소 서리
書寫(2)	병조 吳穉默·李昌植	
庫直(1)	병조 白世鎭	
使令(2)	예조 李命得, 위장소 崔致淵	정례소 사령
文書直(2)	戶曹役人 福伊 등 2명	

의궤소의 정비와 함께 의궤 편찬을 위한 사목(事目) 또한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40) 『日省錄』 순조 27년 9월 13일. “宗薰曰, 以儀軌修正事, 有所仰達矣. 此與設都監有異, 今若稍簡其規制, 校正處所以校書館爲之, 刊印處所以奎章閣爲之, 而字用整理字, 郎廳六員太張, 大減其二員, 只差四員, 如干經費, 自戶曹劃下, 何如? 余曰, 依.”

41) 『日省錄』 순조 27년 9월 30일. “余曰, 儀軌何以爲之乎? 宗薰曰, 近因事煩, 與前禮曹判書臣趙鍾永, 未及會同, 而與設都監有異, 故各該司文書, 姑未鳩聚矣. 儀軌成出後, 若使劣匠印出, 則或有不精之慮, 自內閣印出之, 恐好矣. 余曰, 唯.”

42)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首, 座目.

일, 처소를 교서관으로 함.

일, 낭청은 호조정랑 이겸수, 예조정랑 임백능, 좌랑 심계석으로 차하(差下)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함.

일, 낭청은 본사 상직(本司上直)을 면제하고 제관 임명을 보류함.

일, 의궤에 소용되는 인신(印信) 1과(顆)는 예조에 있는 것으로 사용함.

일, 의궤 7건 내의 2건은 대전·중궁전에 봉입(奉入), 2건은 내입(內入)하고, 1건은 규장각, 1건은 예조, 1건은 서고(西庫)에 나누어 둔.

일, 서리(書吏) 이하 원역(員役) 등의 수효를 헤아려 정하고, 사자관(寫字官) 및 화원(畫員)과 함께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요포(料布)를 지급하게 하고, 수직군사(守直軍士) 또한 해조(該曹)에서 정하여 보내게 함.

일, 의궤에 쓰는 종이, 붓, 먹과 사용하는 잡물(雜物)은 각 해사(該司)에서 진배(進排)하게 함.

일, 다 쓰지 못한 조건(條件)은 추후 마련함.<sup>43)</sup>

이처럼 의궤 편찬의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여러 관서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공문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우선 각종 소용 물품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예조·공조·제용감·선공감·사재감·사점시·사복시·장홍고·의영고 등에 감결(甘結) 형식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사역 인원으로 병조에 군사를 요청하거나 도화서의 화원 2인과 사자청의 사자관 1인을 차출할 때에도 감결을 보냈다.<sup>44)</sup> 사역 인원의 요포 마련을 위해서는 호조 및 병조에 관문(關文) 형식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편찬 예정 기한이 두 달을 넘기자 요포 지급 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또다시 관문을 발송하기도 했다.<sup>45)</sup>

의궤의 초본은 12월 20일에 완성되었다.<sup>46)</sup> 이듬해 1828년(순조 28) 1월 28일에는 인출 전 단계로서 도식(圖式)의 판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의궤의 명칭은 훗날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43)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2, 事目, 丁亥 10월 2일. “進爵儀軌, 今方始役, 應行諸事, 參酌磨鍊, 後錄爲白去乎, 依此舉行, 何如? 達. 依所達施行爲良如教. 一, 處所乙良以校書館爲之爲白齊. 一, 郎廳以戶曹正郎李謙秀·禮曹正郎任百能·佐郎沈啓錫差下, 使之察任爲白齊. 一, 郎廳除本司上直, 差祭安徐爲白齊. 一, 儀軌時所用印信一顆, 以禮曹所在取用爲白齊. 一, 儀軌七件內二件奉入大殿·中宮殿, 二件內入, 一件奎章閣, 一件禮曹, 一件西庫分上爲白齊. 一, 書吏以下員役等, 量宜定數, 竝與寫字官畫員, 令戶兵曹給料布, 守直軍士亦令該曹定送爲白齊. 一, 儀軌所用紙地筆墨及行用雜物, 令各該司進排爲白齊. 一, 未盡條件, 追于磨鍊爲白齊.”

44)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2, 來關, 丁亥 10월 4일; 10월 5일.

45)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2, 來關, 丁亥 10월 4일; 11월 11일; 12월 1일; 12월 21일.

46)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1, 筵說, 丁亥 12월 20일.

‘정해진작의궤(丁亥進爵儀軌)’가 아니라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로 쓰게 하였다.<sup>47)</sup> 그리고 5월 10일에야 인출을 마칠 수 있었다.<sup>48)</sup> 10월 초2일에 의궤소를 설치한 뒤 의궤 인출본이 완성될 때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인출본의 수량은 본래 대전·중궁전 봉입(奉入) 2건, 내입(內入) 2건, 내각·예조·서고(西庫) 각 1건으로 총 7건이었다.<sup>49)</sup> 이후 내입 6건, 서고 1건, 내각 3건 총 10건과 함께 중궁전과 세자궁에 봉입하기 위한 한글본 3건을 선사(繕寫)하도록 하였다.<sup>50)</sup> 이에 따라 5월 10일에 ‘정례의궤(整禮儀軌)’의 간인 및 선사본으로 진서(眞書) 6건, 언서(諺書) 3건’을 보고하였다.<sup>51)</sup>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서고와 내각에 보관하는 한문 인출본 4건을 포함하면 의궤는 한문 인출본 10건과 한글 선사본 3건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자경전진작정례의궤』는 한문본 10건과 한글본 1건의 소재가 확인된다. 한문본은 활자본 2책이 9건, 필사본 1책이 1건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으며, 한글본은 필사본 3책으로 1건이 규장각에 전한다.<sup>52)</sup> 즉, 한글본 『조경년진작정례의궤』는 당시에 제작한 3건 중 1건에 해당한다.

한글본 의궤를 선사한 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의궤 편찬에 대한 시상 내역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의궤 완성 뒤 5월 16일에 의궤교정당상의 행예조판서 조종영과 호조판서 박종훈을

47) 『日省錄』 순조 28년 1월 28일. “余曰，儀軌何當訖役乎？宗薰曰，待圖式盡刻，始可開印矣。鍾永曰，儀軌前面，若書以丁亥進爵儀軌，則後日考據難便，以慈慶殿進爵整禮儀軌書之，似好，故敢達矣。余曰，依爲之。”

48) 『日省錄』 순조 28년 5월 10일.

49) 『日省錄』 순조 27년 9월 10일.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下令, 丁亥 9월 11일;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2, 事日, 丁亥 10월 2일.

50)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下令, 丁亥 11월 6일. “以司謁口傳下令曰，整禮儀軌，以十件印出，六件內入，一件西庫，三件內閣，諺書二件繕寫，一件中宮殿，一件世子宮封入。”

『慈慶殿進爵整禮儀軌』 卷1, “下令, 丁亥 11월 25일.” “口傳下令曰，諺書儀軌一件，加書以入.”

51) 『日省錄』 순조 28년 5월 10일. “整禮儀軌，所以整禮儀軌刊印繕寫眞書六卷諺書三件封入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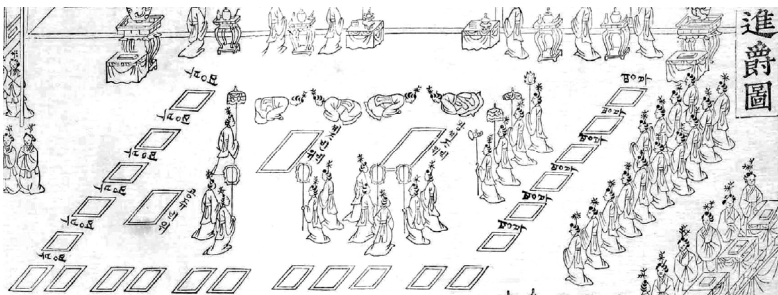
52) 『자경전진작정례의궤』의 현 소장처는 아래와 같다.

자료명	판본	소장 현황
『慈慶殿進爵整禮儀軌』	활자본 2책	규장각 3건, 장서각·계명대학교·미국 UC버클리대학교·컬럼비아대학교·하버드대학교·프랑스 국립중앙언어문화대학교 각 1건 총 9건
	필사본 1책	규장각 1건
『조경년진작정례의궤』	필사본 3책	규장각 1건

비롯하여 낭청 2인, 감동검서관 1인, 계사 1인, 사자관 2인, 화원 3인, 고품부료사자관 1인, 창준 3인, 내각서리 2인, 서사 4인 등에 대하여 시상이 이루어졌는데<sup>53)</sup>, 이 중 사자관이나 서사가 한글본 선사(繕寫)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즈경던진작정례의례』는 3권 3책으로 한문본 의례와 수록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2권 2책의 한문본을 분권하는 과정에서 권1의 의주(儀註)를 한글본에서는 권2로 옮기고, 권2의 찬품(饌品)을 한글본에서는 내찬품(內饌品)과 주원찬품(廚院饌品)으로 구분하여 주원찬품 이후의 내용을 권3으로 나누었다. 한문본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책의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분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문본과 또 다른 부분은 권수(卷首)의 도식(圖式)이다. 한문본과 동일한 목판 인쇄본을 수록하였으나, 텍스트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면 6개, 즉 자경전도(慈慶殿圖), 전내도(殿內圖), 동보계도(東補階圖), 서보계도(西補階圖), 외보계등가도(外補階登歌圖), 외보계헌가도(外補階軒架圖)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그림 부분에는 진작에 참여하는 주요 인물의 자리를 한글로 명기해둔 것이 특징이다. 〈자경전진작도(慈慶殿進爵圖)〉에 ‘왕세 즉위(王世子拜位)’, ‘세 즉빈위(世子嬪拜位)’, ‘공주즉위(公主拜位)’, ‘명



도7-『즈경던진작정례의례』의 〈자경전진작도〉

53) 『日省錄』 순조 28년 5월 16일. “令日, 儀軌校正堂上行禮曹判書趙鍾永・戶曹判書朴宗薰, 各內下大虎皮一令賜給, 郎廳禮曹正郎任百能・侍講院弼善沈啓錫, 各兒馬一匹賜給, 監董檢書官柳本藝, 長弓一張賜給, 計士尹得淵, 寫字官李東秀・洪允福, 書員安英祥・朴禧英, 高品付料寫字官金宗漢, 相當職調用, 書員朴禧瑞邊將除授, 唱準三人, 內閣書吏二人, 各木二匹賜給, 書寫四人, 多朔書役, 足稱效勞, 付之厚料衙門, 其餘書吏・員役・軍士・工匠等, 依戊午年例施賞.”

부(命婦)’를 한글로 써서 각각의 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도7).

이처럼 한글본을 한문본과 조금 다르게 제작한 원인은 편찬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한글본 편찬을 명할 때 중궁전과 왕세자빈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순원왕후 김씨와 왕세자빈 조씨 두 분이 열람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즉, 3책으로 분절하여 책의 두께를 조절한 것이나 의례의 집행에 요긴한 배치 도면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모두 비빈의 열람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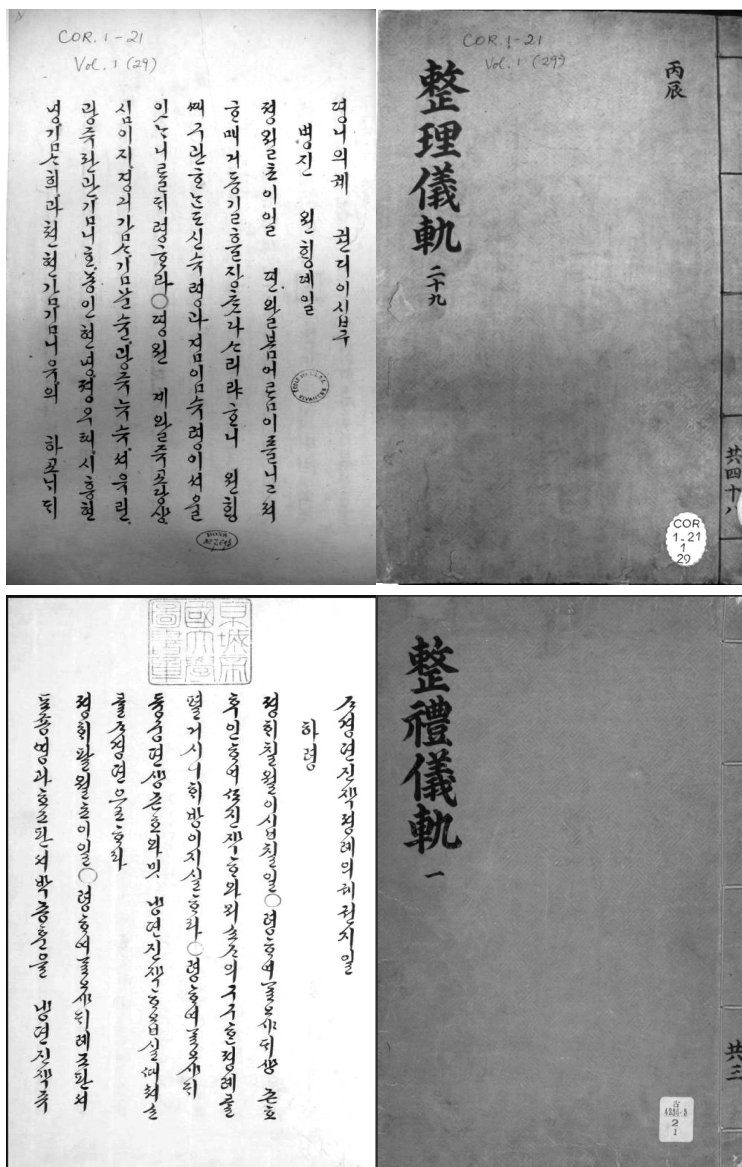
효명세자가 한글본을 특별히 제작한 까닭은 순원왕후 김씨를 향한 효심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정조대의 한글본 의궤 『덩니의궤(整理儀軌)』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덩니의궤』는 현릉원 행행, 혜경궁 홍씨 탄신 경하, 화성 성역 세 부분의 내용을 날짜별로 모은 것으로 현재 48책 가운데 12책만 전한다.<sup>54)</sup>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한글 문헌들을 제작한 전례로 볼 때 이 또한 혜경궁을 위하여 특별히 편찬한 책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

『즈경년진작정례의궤』는 표지, 본문 구성, 서체 등 많은 부분이 『덩니의궤』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특히 표제의 규격이나 서체는 동일인이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본문 또한 9행 17-19자 정도로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며 궁궐의 여성들이 쓰는 궁체와는 전혀 다른 남성의 글씨로 쓴 것이 특징이다(도8).

54) 『덩니의궤』는 전 48책 가운데 12책만 현전하는데, 행행뿐만 아니라 탄신경하, 화성성역까지 수록하고 있다. 모두 온전하게 전한다면 현전하는 『園幸乙卯整理儀軌』와 『華城城役儀軌』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구분	권차	수록 대상 시기
행행(幸行)	권29-32	1796년(정조 20) 1월 20일-2월 14일
	권34	1797년(정조 21) 1월 25일-2월 13일
	권35-36	1797년(정조 21) 8월 3일-8월 16일
탄신경하(誕辰慶賀)	권33	1796년(정조 20) 6월 11일-윤6월 18일
화성성역(華城城役)	권40	1793년(정조 17) 12월 6일-1794년(정조 18) 4월 6일
	권46-48	1795년(정조 19) 9월 27일-1797년(정조 20) 1월 29일





도8-『당나의례』와 『조경단진작정례의례』 비교

#### IV. 맺음말

1827년(순조 27) 9월 10일에 효명세자가 원손 탄생 기념으로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하여 주관 설행한 진작 의례(進爵儀禮)를 위하여 제작한 한글 문헌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당시 진작 의례에 관한 기록으로 한문본 의례뿐만 아니라 한글본 의례와 홀기가 현전하는 데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례 등 관찬 사료를 중심으로 의례의 준비와 진행 절차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치사(致詞)·악장(樂章)·의주(儀註)·홀기(笏記)·의궤(儀軌)를 한글본으로 별도 제작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왕실 여성을 위한 것으로, 순원왕후와 세자빈을 위해서는 치사·악장·의주·의궤를 제작하였으며 비빈의 의례를 보좌하는 여관(女官)을 위해서는 치사·악장·홀기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한글 문헌은 이용자의 지위와 기능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제작 재료와 형태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글 문헌의 제작 배경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 효명세자가 할아버지 정조의 업적을 따르고자 한 점이다. 정조는 혜경궁 홍씨를 위하여 다양한 한글 문헌을 편찬한 바 있는데, 효명세자가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왕세손 시절 대리 청정을 시작할 때 마련한 진찬 의례를 따르고자 한 데서부터 의례의 전담기구로 정조의 ‘정리소(整理所)’와 유사한 ‘진작정례소(進爵整禮所)’를 설치한 것, 한문본 『원행음묘정리의궤』와 한글본 『당년의궤』에 따라 한문본 및 한글본 의궤를 제작한 것 등 하나하나 정조대의 전례를 따르는 모양새다. 앞으로 조선시대의 한글 문헌을 연구하는 데 효명세자와 정조에 대한 더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원전자료

- 『대던증궁던상존호후 왕세즉즉진작형례 홀기』(규장각 奎 27612).  
『대던증궁던상존호시 왕세즉즉친상척보진치스전문표리형례 홀기』(규장각 奎 27613).  
『대왕대비던 가상존호척보 친전의』(장서각 K2-2802).  
『덩니의궤』(프랑스 국립중앙언어문화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박물관·동아대학교박물관 교류전) 동궐(東闕)』, 고려대학교박물관, 2012.  
『上號都監儀軌』(규장각 奎 13344, 장서각 K2-2814).  
『御製慈宮樂章』(규장각 奎 7084).  
『御製慈宮臨華城行宮進饌樂章』(규장각 奎 2065).  
『園幸乙卯整理儀軌』(규장각 奎 14532).  
『慈慶殿進爵整禮儀軌』(규장각 奎 14535, 장서각 K2-2858).  
『즉경던진작정례의궤』(규장각 古 4256.5-2).

### 2. 논문 및 저서

- 金奉佐,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중수, 「奎章閣 所藏 연향 관련 儀軌 고찰」. 『韓國學報』 第29 卷4號, 2003, 56-92쪽.  
\_\_\_\_\_, 「조선시대 大殿·中殿 尊號儀禮의 변천과 用樂 고찰」. 『韓國音樂史學報』 第49輯, 2012, 143-179쪽.  
\_\_\_\_\_, 「조선 후기 內宴 儀禮의 변천」. 『溫知論叢』 第35輯, 2013, 415-453쪽.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 악장 一夜宴의 〈樂歌三章〉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20집, 2004a, 173-195쪽.  
\_\_\_\_\_, 「순조조 외연의 한글 악장 -효명세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第15輯, 2004b, 287-313쪽.  
옥영정, 「한글본 『덩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第39輯, 2008, 139-168쪽.  
이화숙, 「『즉경던 진작 정례 의궤』의 어휘와 번역 양상」. 『국어교육연구』 제44집, 2009a, 321-352쪽.  
\_\_\_\_\_, 「조선시대 한글 의궤의 국어학적 연구 -〈즉경던진작정례의궤〉와 《덩니의궤》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b.  
韓熙珍, 「조선 후기 箋文 연구 -賀箋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국 문 요 약

이 글은 1827년(순조 27) 9월 10일에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하여 주관 설행한 진작 의례(進爵儀禮)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왕실 잔치를 위하여 제작한 한글 문헌의 종류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당시 진작 의례에 관한 기록으로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가 편찬되었는데, 한문본뿐만 아니라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작되었다. 또 의례의 절차를 기록한 한글 홀기 역시 현전하고 있다. 이처럼 한글 문헌이 제작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의례의 절차와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왕실의 한글 사용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별 한글 문헌으로 제작된 치사(致詞), 악장(樂章), 의주(儀註), 홀기(笏記), 의궤(儀軌)의 제작 배경을 비롯하여 형태, 내용, 기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두 왕실 여성을 위한 것이나, 순원왕후와 세자빈을 위해서는 치사, 악장, 의주, 의궤가 제작되었으며, 비빈의 의례를 보좌하는 여관(女官)을 위해서는 치사, 악장, 홀기가 제작되었다. 동일한 내용의 문헌이라도 사용자의 지위에 따라 기능뿐만 아니라 제작 재료와 형태가 달랐다.

**투고일** 2015. 6. 22.

**심사일** 2015. 7. 20.

**게재 확정일** 2015. 9. 3.

**주제어(keyword)** 『자경전진작정례의궤』(*Royal Protocol for the Court Feast at Hall of the Mother & Good Fortune*), 한글 문헌(Hangeul Manuscripts), 치사(Praise), 악장(Lyric), 의주(Explanation of the Ritual), 홀기(Potable Record of Ritual Protocol), 의궤(Royal Protocol)

## Abstracts

The Royal Banquet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Functions of *Hangeul* Records: Focusing on *Royal Protocol for the Court Feast at Hall of the Mother's Good Fortune* in 1827  
**Kim, Bong-jw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forms and functions of *hangeul* manuscripts that were produced for royal banquets in the late Joseon period, focusing on the wine offering rite held by Crown Prince Hyomyeong for the King Sunjo and Queen Sunwon on September 10, 1827.

When *Royal Protocol for the Court Feast at Hall of the Mother's Good Fortune* was compiled to record the wine offering rite, not only Chinese manuscripts but also *hangeul* manuscripts were produced. And potable record of ritual protocols for the rite written in *hangeul* are exta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duction background of these *hangeul* manuscripts, this paper examined first the aspects of use of *hangeul* in royal household by means of review and classification on the procedures and all concerned of the ritual. In the following, this paper took a closer look at the form, content, function as well as the production background of each *hangeul* manuscript such as praise, lyric, explanation of the ritual, potable record of ritual protocol, and royal protocol.

All of these manuscripts were made for women of royal household, and more specifically, manuscripts for Queen Sunwon and Crown Princess were praise, lyric, explanation of the ritual, and royal protocol; manuscripts for housewives of royal families were praise, lyric, and portable ceremony procedure. Even though the contents were equal, according to the user's status materials, forms as well as the func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er's status.